

우리나라 사회복지학 연구경향에 관한 연구* - <한국사회복지학>에 실린 경험분석연구를 중심으로 -

김 연 옥**

본 연구는 1979년 이후부터 1997년까지 <한국사회복지학>에 게재된 경험분석연구논문 총 125편을 이론화를 위한 연구정향과 방법론적 특성면에서 분석한 것이다. 경험연구편수는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며 경험연구점유율은 평균 42.7%에 이르렀다. 분석결과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제성과 협업성, 선정된 연구주제, 산출지식의 성격 등의 측면에서 분석해 본 결과 사회복지학의 실천성은 아직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분석한 연구들은 개별화된 주제와 서로 다른 분석틀에 의해 수행되어 그 결과들은 서로 단절되어 있었으며 연구주제들의 집락형성도 극히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져 경험분석연구들에 한정시켜 볼 때 우리나라 사회복지학 연구들은 아직 이론화의 과정으로 발전하지 못하였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셋째, 경험연구의 방법론적 패러다임은 양적 방법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황으로서 새로운 인식론에 대한 수용이 다른 분야에 비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넷째, 우리나라 사회복지학의 경험연구단계는 형상서술적 단계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I. 들어가는 글

이 글은 1979년 이후부터 1997년까지 진행된 우리나라 사회복지학 연구, 특히 경험분석을 시도한 연구들의 연구경향을 분석함으로써 실천 종합학문으로서의 사회복지학의 학문적 위상을 점검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학의 과반세기 역사에 대한 반성적 의미를 담은 이러한 시도는 사회복지학의 발전적 정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된다.

1947년 이화여자대학교에 기독교사회사업학과 창설로 시작된 우리나라 사회복지교육은 1997년 올해로 반세기를 넘어서는 기점에 이르렀다. 이화여대를 이어 강남대(1953년), 서울대(1959년), 중앙대(1962년) 등에 학과가 개설되면서 사회복지가 대학에서 연구되고 교수되는 분야로

* 본 연구는 1997년도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복지학과 교수

자리를 잡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사회복지교육은 실천현장이 거의 부재한, 6.25전쟁으로 시작된 아동구호사업이 전부랄수 있는 사회복지현실에서 대학내에서만 외국지식을 답습하는 것에 불과하였다.

그후 산업화의 촉진과 그에 따른 사회문제의 심화, 군부독재의 정치적 정당화, 경제성장에 따른 부의 편중 등의 제 요인에 의한 사회복지제도 및 서비스의 확대에 의해 한국형 사회복지제도의 모색이 사회복지학의 주된 과제로 부상하면서 사회복지학은 사회학, 정치학, 법학, 정책학 등 인접학문과 상호침투하는 초광역학문으로 자리잡게 되고, 사회복지인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의 급증으로 사회복지학과가 각 대학에 대거 신설된다. 1998년 현재 62개 4년제 대학에서 매년 3,000여명의 사회복지 전공생을 배출하고 있으며 연구인력도 양적으로 급증하였다.

이러한 사회복지실천현장의 확대, 사회복지전문인력의 급증, 사회복지학과의 증설 등 사회복지학의 외적 조건의 발전은 동시에 한국형 사회복지제도의 모색, 사회복지실천에서의 전문성제고, 학문으로서의 정착 등 막중한 과제를 사회복지학에 요구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과 교육, 이론과 현실의 전후가 뒤바뀐 채로 시작된 우리나라 사회복지학의 태생적 한계점은 사회복지계의 난제로 남아있다. 이론의 빈약성과 적실성에 대한 문제제기, 이보다 더 나아가 “과연 사회복지학이 학문인가”라는 본질적인 도전을 받기도 하였다. 무엇보다도 사회복지학이 하나의 학문으로서의 기본적 요소, 즉 고유한 연구대상, 연구방법, 이론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해 많은 회의가 있어왔다.

이러한 지적들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문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작업은 별로 활발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소의 아이러니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극히 최근 1995년에 한국사회복지학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최균의 “한국사회복지학 연구의 분석과 과제”가 유일무이한 연구물이다. 사회복지학 연구동향에 관한 유일한 연구라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을 수 있겠으나 현상적 분석으로 그친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학 연구물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통해 실천학문으로서의 사회복지학의 현재의 위치를 점검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 주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더욱 정밀한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탐색적, 시론적 연구의 성격을 갖는다.

II.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경험연구분석의 의의는 사회복지학의 보편성과 우리나라 사회복지학의 특수성 양자에서 찾

아 질 수 있다. 무엇보다도 사회복지학은 경험과학으로서 문제해결을 위한 과학이라는 사회과학의 특성에서(김성이·김상균, 1994: 29) 예외가 아니며 실천응용학문이라는 사회복지학의 본질은 이러한 특성을 더욱 강하게 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연구는 철학적 사변이나 형이상학적 입론보다는 '현실'과 '사실(fact)'에 주목할 것이 요구되며 이러한 요구를 가장 충실하게 반영하는 연구형태가 경험분석연구라고 볼 수 있다. 실천응용학문이라는 사회복지학의 실천성을 담보해내기 위해서는 학문의 적실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사회복지학이 직면하고 있는 절실한 과제이다. 학문의 적실성이란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학문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첫째,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이야기'이어야 하고, 둘째, 현장 중심적이어야 하며, 셋째, 나름의 논리와 언어, 방법론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김정근·김영기, 1996: 13-24) 이러한 특수성에서도 경험연구분석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경험분석연구란 경험적 자료에 입각하여 사회현상을 기술하고 설명하여 이에 대한 보편 타당한 지식체계를 얻기위한 연구로 정의된다. 경험적 자료란 학파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연구주체에 부합되게 직접 수집한 자료와 정부나 관련기관의 수량화된 자료나, 개인의 서신, 정부기록, 병원이나 사회복지기관 등의 사례 기록¹⁾과 같이 기왕에 존재하는 질적 자료로 정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크게 이론화를 위한 연구정향과 방법론적 특성으로 대별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과제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질문1. 연구주제, 연구영역 무엇인가?
- 질문2. 연구의 학제성과 협업성은 어떠한가?
- 질문3. 산출된 지식의 실천성은 어떠한가?
- 질문4. 산출된 지식의 우리나라 현실정합성은 어떠한가?
- 질문6. 이론화의 수준은 어떠한가?
- 질문7. 활용되는 방법론은 무엇인가?
- 질문8. 이론적 정향과 방법론의 상호 규정성은 어떠한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한국사회복지학>(1979년 창간)에 게재된 경험분석연구들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우리나라 사회복지학연구의 결과물들 - 저서와 학술논문을 망라하여 - 모두 살펴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상 우리나라 사회복지

1) 본 연구의 분석대상 논문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case recording과 case study는 Yin이 제시한 기준, ①연구문제설정, ② 가설(선택), ③분석대상, ④ 자료와 가설간의 논리적 연결성, ⑤ 결과를 해석하는 기준 등에 근거하여 선별하였다. (Yin, R., 1989, case study research, SAGE Publications, 1989, p. 29.)

학 연구를 대표하는 학술지로 인정되는 한국사회복지학에 게재된 논문으로 한정하였다.

연구방법은 연구범주에 따라 내용분석방법(content analysis)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자료분석은 SPSS Window를 활용하여 빈도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III. 경험분석 연구추이

<한국사회복지학>은 사회복지분야를 대표하는 대표적 학술단체로서 1957년에 창립된 한국사회복지학회(창립시에는 한국사회사업학회로 명칭)가 발간하는 학술지로서 1979년 <사회사업학회지>로 창간되었고 1984년 제6호 때부터는 <사회복지학회지>로 개칭되었다. 1985년 한국사회복지학회라는 동일한 이름의 학회가 발족되면서 <한국사회복지학> 1, 2호를 발간하였다. 1987년 두 개의 학회를 통합함과 동시에 기존의 두 개의 학회지도 통합하여 <한국사회복지학>이라는 명칭으로 통합본인 제11호를 발간하면서 이때부터 연 2회 발간하기 시작하였다. 1995년부터는 연3회 발간되기 시작하면서 외형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1979년 창간호에 실린 총 논문수는 12편이었으며 두 개의 학회가 존재하여 각기 학회지를 발간하던 1986년에는 총 15편, 연3회 발간되기 시작한 1995년에는 총 25편으로 계속 게재논문편수가 증가하여 1997년에는 총 46편의 논문이 동 학회지에 게재되었다.

1979년부터 1997년까지 연도별로 게재된 총 논문과 이중 경험분석연구의 점유율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1979년 창간호로부터 1997년의 33호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복지학회지에 실린 논문의 총수는 293편이며, 이중 경험분석연구논문은 총 125편으로 42.7%의 점유율을 보였다. 이는 같은 사회과학분야인 정치학분야에서 1980년에서 1995년에 발표된 경험연구를 분석한 김계수 외(1993)의 연구에서 밝힌 정치학에서의 경험연구점유율 28.4%에 비하면 사회복지학에서의 경험연구의 점유율은 높다고 하겠다.

그러나 1980년대 초까지는 경험연구비율이 15%전후로 그다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1980년대 중반까지도 증감의 부침을 보이다가 1987년이후로 경험연구비율이 30%이상으로 안정된 점유율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1990년에는 76.5%로 격증하며 1996년에는 83.3%라는 대단히 높은 경험연구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1990년을 기점으로 경험연구점유율의 평균을 웃돌 정도로 경험분석을 시도한 논문이 증가하는 요인중의 하나로 이 시기에 해외에서 고도의 계량분석기법을 공부한 신진학도들이 귀국하여 국내에서 연구활동을 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뒤의 <표 8>에서 보이듯이 1990년 이후로 다양한 고급통계기법들이 분석기법으로 활용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들이 주로 해외에서 취득한 학위논문에서 처음 소개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통해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표 1> 연도별 논문편수와 경험분석연구의 점유율

간행년도(호)	총게재논문수(A)	경험분석연구논문수(B)	비율(B/A x 100)%
1979(창간호)	12	2	16.7
1980(2)	7	1	14.3
1981(3)	9	1	11.1
1982(4)	8	0	0.0
1983(5)	6	2	33.3
1984(6)	11	4	36.4
1985(7)	8	1	12.5
1986(8, 9)*	15	3	20.0
1987(10)*	5	3	60.0
1988(11, 12)	18	6	33.3
1989(13, 14)	14	5	35.7
1990(15, 16)	17	13	76.5
1991(17, 18)	16	6	37.5
1992(19, 20)	12	6	50.0
1993(21, 22)	16	5	31.3
1994(23, 24)	18	10	55.6
1995(25, 26, 27)	25	10	40.0
1996(28, 29, 30)	30	25	83.3
1997(31, 32 33)	46	22	47.8
계	293	125	42.7

*창간호~8호 : 사회복지학회지, 9호~10호 : 한국사회복지학1, 2호, 11호이후 ; 한국사회복지학

IV. 연구정향

1. 학제성 및 협업성

Romanyshyn(1974)은 대부분의 학문이 인간행위의 '한' 측면에 대한 해답만을 추구하는 것에 비하여 사회복지학은 그 해답을 '전체'로서 제시하려고 노력하는 데에 그 특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전남진, 1987: 400) 이것은 무엇보다도 사회복지학이 사회문제의 규명과 개입의 실천학문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사회복지학이 학문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다른 인접학문과의 교류와 연계, 그리고 실천현장실무자들의 연구활동과 실무자와 학자들간의 협업이 어느 학문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우리나라 <한국사회복지학>에 경험적 논문을 게재한 연구자들의 개인적 배경과 연구단위 등을 살펴보면 다른 학문과의 학문적 의사소통과 이론과 실천을 연결하는 작업이 매우 부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교수나 연구원 등 학자 중심의 연구가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으며(91.0%), 사회복지현장 실무자의 참여도는 6.0%에 불과하다. 전공별로는 사회복지전공자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며(96.4%), 다른 인접학문전공자는 4명에 불과하다.

<표 2> 연구자의 직책과 전공분야

연구자의 직책		전공분야	
분류	빈도(%)	분류	빈도(%)
교수	127(76.5)	사회복지학	160(96.4)
연구원	24(14.4)	행정학	1(0.6)
대학원생	5(3.0)	경제학	1(0.6)
실무자	10(6.0)	보건학	1(0.6)
		심리학	1(0.6)
		기타	2(1.2)
계	166(100.0)	계	166(100.0)

주) 연구자의 직책은 연구자가 논문에서 밝힌 직책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강사는 교수로 분류하였으며, 교수가 실무를 병행하는 경우 교수로 분류하였다.

다른 학문분야와의 학제간연구, 실무자와 학자간의 협업성의 정도는 <표 3>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표 3> 연구자의 직책과 전공분야에 따른 연구단위

연구단위	구분	직책별		전공분야별		계(%)
		분 류	빈도	분 류	빈도	
단독연구	교수		85	사회복지	97	97(77.6)
	연구원		6			
	대학원생		4			
	실무자		2			
2인공동연구	교수+교수		7	사회복지+사회복지	19	19(15.2)
	교수+연구원		6			
	교수+대학원생		1			
	연구원+연구원		4			
	실무자+실무자		1			
3인공동연구	교수 3인		2	사회복지(3)	4	6(4.8)
	교수 2인+실무자		2	사회복지(2)+보건행정학	1	
	교수+연구원 2인		2	경제학+기타(2)	1	
4인공동연구	교수 2인+실무자 2인		2	사회복지(4)	2	2(1.6)
5인공동연구	교수(5인)		1	사회복지(4인)+심리학(1인)	1	1(0.8)
총계			125		125	125(100.0)

연구단위로는 단독연구가 77.6%에 이르고 2인이상의 공동연구는 22.4%로 집계되어 연구의 협업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단위를 연구자의 직책을 고려하여 분류해본 결과 대부분의 연구가 학자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학자와 실무자간의 공동작업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총 4편으로 전체 연구편수의 3.2%에 불과하여 이론과 실천을 연결하는 협업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의 학제성 또한 매우 부진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2인이상의 공동연구 대부분이 사회복지전공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여타 인접학문의 전공자와 공동으로 수행된 연구는 3편에 그친 것으로 드러나 인접학문과의 의사소통이 거의 단절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정책이나 사회복지서비스 등 사회복지현장실무자들에 의해 단독, 혹은 공동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총 7 편(단독연구 2, 공동연구5, 총연구편수의 5.6%)에 불과하며 학자들에 의해 수행된 연구가 대부분을(94.5%)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회복지학이 실천학문임에 비추어 볼 때 이렇게 낮은 실무자들의 기고수준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하겠다.

2. 주제선정의 성격2)

연구주제3)를 시기별로 분류하여 <표 4>에 정리하였다. 시대적 구분은 사회복지학 연구주제의 전반적인 경향과 발전의 흐름을 고찰하기 위하여 <한국사회복지학>이 처음 발간되는 1979년을 시작으로 5년간의 간격으로 나누어 보았을 뿐 특별한 시간적 의미는 없다.

<표 4> 시기별 연구주제분포

시기 \ 연구주제	1979 - 1984	1985 - 1989	1990 - 1994	1995 - 1997	계(%)
사회복지제도와 정책 분석 / 평가(1)		5(27.8)	1(2.5)	7(12.3)	13(10.4)
프로그램 개발(2)		1(5.6)		1(1.8)	2(1.6)
사회복지조직 운영/관리/평가(3)	1(10.0)	2(11.1)	3(7.5)	7(12.3)	13(10.4)
사회복지전문인력 관리/평가(4)			5(12.5)	2(3.5)	7(5.6)
사회사업실천; 진단/ 개입/평가(5)	1(10.0)		6(15.0)	9(15.8)	16(12.8)
사회복지관련 현상에 대한 이론적 규명(6)	4(40.0)	5(27.8)	18(45.0)	21(36.8)	48(38.4)
욕구측정(7)		3(16.7)	5(12.5)	3(5.3)	11(8.8)
복지관련 의식/태도/이념(8)	2(20.0)	2(11.1)	1(2.5)	2(3.5)	7(5.6)
사회복지 교육(9)	2(20.0)			1(1.8)	3(2.4)
기타(10)			1(2.5)	4(7.0)	5(4.0)
계	10(8.0)	18(14.4)	40(32.0)	57(45.6)	125(100.0)

* (7) : 복지관설립이나 혹은 특정대상을 위한 프로그램개발을 목적으로 조사된 연구
 (10) : 위의 어느 항목과도 주제가 구별되는 연구들을 별도로 분류하였음

- 2) 분석대상 연구의 주제별 분류는 부록편에 제시하였음.
 3) 연구주제 분류항목중 사회복지관련 현상에 대한 이론적 규명이란 사회복지실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식보다는 보다 일반적인 지식, 사회복지활동에 기초가 되는 지식을 구하는 연구들을 의미한다. 이 범주로 분류된 연구들은 연구대상인 현상의 사회복지관련정도나 구한 지식의 일반성면에서 서로간에 다소의 차이를 보여준다. 욕구조사는 복지관설립이나 특정대상을 위한 프로그램개발을 목적으로 실시된 연구를 의미하며, 어느 항목으로도 분류되기 어려운 나름의 독특한 주제를 다룬 경험연구는 모두 기타로 처리하였다.
 연구의 주제분류는 논문의 내용을 분석하여 분류한 것이므로 때로 일견 논문제목에서 파악되는 주제와는 다르게 분류된 것이 있다. 연구주제분류는 연구자가 분류한 결과를 두 분의 교수에게 검토받아 수정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최대한 상호배타적으로 분류하려고 노력하였으며, 두 가지 이상의 연구주제를 다룬 연구인 경우에는 각 주제의 비중을 근거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연구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류결과에서 어느 정도의 애매함을 부정할 수 없으며, 또한 개별적 연구별로 분류항목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주제분석의 초점을 개별연구에 둔 것이 아니라 전체적 경향에 둔 것임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표 4>에 나타난 연구주제 분석결과 125편의 논문중 사회복지관련 현상에 대한 이론적 규명을 시도한 연구가 총48편(38.4%)으로 1위를 점하며, 다음이 사회사업실천에 관한 연구가 16편(12.8%), 사회복지제도와 정책분석/평가가 사회복지조직 운영/관리/평가와 동일하게 총13편(10.4%), 욕구측정이 총11편(8.8%), 그 뒤를 이어 사회복지전문인력 관리/평가, 복지관련의식/태도/이념이 동일한 연구편수(총7편, 5.6%)를 보이고 다음이 기타로 총 5편(4.0%), 사회복지교육이 총3편(2.4%), 끝으로 프로그램개발이 총2편(1.6%)의 가장 낮은 비율로 드러났다.

무엇보다도 초기에 비해 최근에 이를수록 연구주제가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이는 변화이다. 특히 1995년 이후에는 욕구측정기법이나 표준화된 척도개발, 사회복지서비스의 정보화 등 첨단적 과제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이 극소수나마 시도되기 시작한 것도 발전적 변화라고 인정된다.

사회복지전문인력에 관한 연구가 보이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이며, 제일 처음 시도된 연구는 미국의 사회복지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였다. 이 연구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이 경험하는 소진이라는 개념을 소개하였고 그 이후 이 개념을 우리나라 사회복지실무자들에게 적용한 연구들이 수행되기 시작하였고, 또한 최균(1995: 4)도 밝혔듯이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제도화된 것도 이 시기의 사회복지전문인력에 관한 연구증가를 설명하는 또 다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사업실천과 관련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도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이후로 우리나라에 사회복지학이 도입된 후 거의 40년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서이다. 이것은 이 시기 전까지는 이 분야에 관한 연구들이 현장성없이 서구의 실천이론이나 실천모델을 소개하는 식의 연구로 일관되어왔다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나라 현실에 기초한 임상성을 가진 연구는 1990년대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미시복지학, 즉 사회사업실천분야의 최근의 연구경향을 가리켜 '서구이론의 소개와 더불어 이들 이론을 근거로 사회복지실천에 적용하면서 구체적 실태조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 김성이 외(1994: 49)의 주장을 현실적으로 뒷받침해준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후반기에는 사회복지제도와 정책분석/평가에 관한 경험연구가 사회복지관련 현상에 대한 연구와 함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전반기에는 단 1편으로 오히려 감소하다가 후반기에 들어서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섰으나 전체적으로 3위에 그치고 말았다. <한국사회복지학>(1994년발간호까지)에 실린 논문전수와 1979년이전 발표된 대학원 학위논문 전수를 분석한 최균(1995: 4)이 이 분야에 관한 연구가 가장 급성장한 연구라고 밝힌 연구결과를 관련시켜보면 아직도 이 주제에 관련해서는 경험적 연구보다는 문헌연구가 더 선호되는 것으로 이해하여도 무방하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사회복지학의 정책분석연구들의 주된 연구경향이 실증주의적이며 따라서 반역사적, 반사회적이라고 비판한 임종대(1993: 211)의 주장

은 적어도 본 연구에서는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주제 분석결과 가장 커다란 문제점으로 주제선정상의 불균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실천과 관련된 주제보다는 이론적 주제가 가장 많이 다뤄졌다는 점은 연구자 대부분이 교수나 연구원들이며 실무자의 연구수는 매우 적었다는 사실과 상호 연관된 결과라고 보며, 이것은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실천성없는 이론에 경도되어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연구경향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연구의 적실성과 임상성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하겠는데, 이러한 경향은 무엇보다도 사회복지 임상성이 떨어지는 연구자들이 연구를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회조사(social research) 성격의 연구, 즉 (1) 특정 사회복지 관련 현상에 대해 서구에서 선행된 연구분석을 기초로 연구개념이나 가설을 도출하고, (2) 현상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 주로 설문지를 구성하고, (3) 집단을 표집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4) 자료를 집단화하여 통계분석하여, (5) 서구에서 정립된 이론이나 개념을 우리나라 현실에서 검증한 뒤, (6) 이론적, 혹은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는 형식의 연구가 경험연구의 주를 이루는 현실에서 재확인된다.

3. 산출지식의 성격

1) 실천이론의 부재

Cowger와 Kagle(1980: 82-89)은 사회사업실천⁴⁾에 직접적으로 적용·활용될 수 있는, 즉 실천적 유용성이 있는 조사연구의 조건으로 첫째, 실천적 가정을 검증하거나, 실천적 가정 혹은 실천적 지침⁵⁾이 조사결과로부터 도출되어야 하고⁶⁾, 둘째, 연구자가 제안하는 실천적 전제나 지침은 조사결과와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연결되어야 하며, 셋째, 연구대상인 사회사업실천, 즉 독립변수의 성격과 내용이 분명하게 기술되어 있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Cowger와 Kagle은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사회사업조사연구는 실천적 유용성이 없는 연구인데, 미국에서 수행되는 사회사업조사연구들중 많은 연구가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사회사업조사연구는 과연 무엇을 위한 연구인가'라고 반문한 바 있다(1980:82-89). 사회복지연구의 실천적 유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 질문을 우리나라의 현실에 돌렸을 때 매우 유감스러운 대답을 발견하게 되었다. 세 가지 기준에 비추어 경험연구들을 분석하였을 때 이

4) 사회사업실천이란 사회사업가의 실천행동, 실천모델, 제공된 서비스, 서비스프로그램 등을 의미한다.

5) 실천적 지침이란 실천적 가정과 달리 결과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는다. 즉 조사자료에 근거하여 실천과정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나 행동을 진술한 것을 의미한다.

6) 실천적 가정이란 In situation X, intervention Y is likely to result in outcome Z.의 형태로써 상황 X는 없을 수도 있다.

기준을 만족시키는 연구는 한편도 발견되지 않았던 것이다. <표 4>의 사회사업실천영역으로 분류된 연구중에서 세 가지 조건중 두 가지를 충족시키는 연구가 총 7편(125편중 5.6%), 한가지를 충족시키는 연구가 총 3편(2.4%), 어느 한 조건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연구가 총 7편(5.6%)으로 드러나 연구영역으로는 사회사업실천으로 분류되는 연구조차 실천성과 임상성을 갖추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2) 생산지식의 이론적 체계성

한 학문분야에서 생산된 지식이 이론적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별연구들에서 도출된 결과들에 대한 검증과 반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의 연구에서 얻어진 연구결과가 다른 연구에 의해 재검증 혹은 반증되기 위해서는 연구자들이 공유하는 동일한 연구주제가 형성되어 있고, 또한 한 연구의 분석틀이 다른 연구에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설정된 가정, 판단의 내용과 근거자료 등이 다른 연구자에 의해 확인되거나 반대로 비판되는 과정을 통해 통치화된 지식의 생산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 연구자에 의해 특정 현상에 대한 특정의 분석틀에 의해 생산된 지식이 여러번의 연구과정에 의해 반복성, 규칙성, 항상성을 획득할 때에 비로서 통치화된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김인철, 1994:179 - 180)

그러나 125편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동일주제에 동일한 분석틀을 재적용하여 이루어진 연구는 발견되지 않았다. 연구주제에 있어서는 미미하나마 유사주제의 집락형성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 관련요인 (총2편), 장애인취업지속 관련 요인 (총2편), 사회복지실무자들의 소진현상 (총3편),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직무만족(이직포함) (총3편), 사회복지의식 (총4편), 심신기능손상노인 부양결정요인 (총3편),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건강간의 관계 (총3편)으로 분석논문의 15.2%를 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7) 이들 동일주제집락들 중 대부분은 연구대상이 서로 달랐으며 다만 설명 변수들중의 일부가 동일하였고, 사회복지의식을 다른 4개의 연구들은 서로 다른 변수들로 복지의식을 측정하였다. 나머지 106편의 연구들의 주제들은 연구자별로 임의로 선정되어 서로간에 연계성이 없이 개별화되어 있고 분석틀 또한 연구자 나름으로 구성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결과들로 미루어볼 때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분야의 경험적 연구는 아직 재검증, 혹은 반증과정의 반복은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이며 연구별로 개별화된 주제와 분석틀에 의해 수행된 연구들은 그 결과들이 서로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분절됨으로써 아직은 사회복지관련 현상에 대한 지식의 개별적 '발견' 혹은 '도출', 그리고 개별화된 '주장'의 수준에 머물고 이론화 과정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7) 한 연구자에 의해 소진과 직무만족이 함께 다루어진 연구는 양 주제로 각각 포함시키고, 전체 동일주제 논문편수에서는 1편으로 집계하였다.

V. 방법론적 특성

1. 연구분석방법

1980년대 미국 사회복지계의 가장 큰 논쟁중의 하나는 사회사업지식의 인식론과 방법론적 논쟁이었다. Fischer나 Hudson으로 대표되는 '과학적 사회사업' 주창자들은 사회사업실천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된다는 주장아래 문제의 객관적 측정, 연구자나 연구대상자의 주관성이 배제되고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운(context-independent) 엄정한 과학적 연구과정, 일반화가 가능한 연구결과 등을 강조하였다. 반면 양적 방법론을 반대하는 일단의 학자들은 무엇보다도 양적 방법론이 근거하고 있는 논리실증주의가 사회사업실천과 인식론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Beckerman, 1978; Smith, 1987) 즉 사회사업실천은 워커와 클라이언트간의 복잡하며 주관적인 상호교환적 과정이기 때문에 논리실증주의적 지식은 적합치 않다는 주장이다. 이들의 주장은 사회사업실무자들이 양적방법론에 의해 수행된 조사연구결과를 자신들의 실무에 거의 활용하지 않는다는 많은 조사연구들(Rosenblatt, 1968: Casselman, 1972: Kirk et al., 1976)에 의해서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실무자들의 조사연구결과를 활용하는 정도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김연옥, 1994) 대신에 이들은 개인적 주관성, 개인이 위치한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과의 상호작용, 개인의 경험과 의미 등을 강조하는 질적 방법론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서구사회에서 일고 있는 이러한 소위 '패러다임의 전환'과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연구는 대부분 양적 방법론에 의해 주도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5>에 제시되었듯이 총 125편의 분석논문중 92.8%에 달하는 116편이 양적 방법으로 연구되었으며, 3.2%인 단 3편만이 질적 방법론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는 생산된 지식이 사회사업실천에는 부적합하다는 보편적 문제 뿐만 아니라 서구사회이론의 이식이라는 역사성에서 비롯되는 우리나라만의 문제점을 노정시키는 결과이다. 즉 현상의 발견을 주목적으로 하는 질적 연구보다 기존이론과 지식에 기초

<표 5> 연구분석방법

분 류	빈 도	%
양 적 방 법	116	92.8
질 적 방 법	3	3.2
기 타	6	4.0
계	125	100.0

한 가설-연역적 연구가 주를 이루는 양적 연구는 우리나라 현실과는 동떨어진 서구이론을 한국 현실에 무비판적으로 적용하여 검증하는 적실성없는 연구가 상당 수준 계속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2. 연구목적과 성격

양적 방법으로 분석된 연구 총 116편의 연구목적과 성격에 따른 유형을 분류한 결과 다음의 <표 6>과 같이 집계되었다.

<표 6> 연구목적과 성격에 따른 유형

시기 \ 분석유형	1979 - 1984	1985 - 1989	1990 - 1994	1995 - 1997	계(%)
형상서술	8 (80.8)	14 (77.8)	24 (63.2)	30 (60.0)	76 (65.5)
가설·모형검증	1 (10.0)	3 (16.7)	13 (34.2)	12 (24.0)	29 (25.0)
인과관계검증	1 (10.0)			5 (10.0)	6 (5.2)
기타		1 (5.6)	1 (2.6)	3 (6.0)	5 (4.3)
계(%)	10 (100.0)	18 (100.0)	38 (100.0)	50 (100.0)	116 (100.0)

총116편의 경험논문의 연구유형은 대체로 형상서술적 연구(descriptive-configurative study), 가설·모형검증형 연구, 인과관계검증형 연구 등 세가지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많은 비율을 점하는 연구는 연구대상의 존재양상이나 변인간의 관계양상에 대한 형상서술적 연구로 65.5%(총76편)로 집계되었으며, 다음이 변수들간의 관계⁸⁾를 검증하는 가설·모형검증연구로 25.0%(총29편), 그리고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연구가 5.2%(총6편)로 가장 적은 편수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경향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을 것이다. 우선 경험분석이 발전하면 할수록 서술형 연구보다는 가설이나 모형검증을 통한 이론화작업이 활발하다(김계수 외, 1993:138)는 점에 비추어 볼 때 50년이 넘는 사회복지학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경험적 연구가 별로 발전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50년이 넘는 사회복지학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회복지현상에 대한 이론정립이 미진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확인케하여준다.

8) 관계의 방향과 정도를 포함하나 인과적 관계는 아님

반면에 경험연구의 발전과정이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받아들여 진다. 경험분석과 이에 기초한 이론화작업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복지현상의 존재양상의 발견, 이에 대한 정확한 서술과 개념적 연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후에라야 '성급한 일반화'나 '사색없는 이론화'의 오류를 범할 위험성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3. 통계기법

양적방법론에 의해 시도된 연구들이 사용한 통계기법을 시기별로 분류한 결과가 다음의 <표 7>에 정리되어 있다.⁹⁾

<표 7> 통계기법

통계기법	1979-1984	1985-1989	1990-1994	1995-1997	계	총계	
빈도	7(36.8)	4(21.1)	3(15.8)	5(26.3)	19	19(9.5)	
χ^2 검증	1(3.2)	8(25.8)	14(45.2)	8(25.8)	31	31(15.6)	
t 검증	t 검증	1(3.1)	3(9.4)	11(34.4)	17(53.1)	32	35(17.6)
	Wilcoxon test			2(66.7)	1(33.3)	3	
상관분석 - 피어슨 r	1(4.0)	1(4.0)	10(40.0)	13(52.0)	25	25(12.6)	
분산분석	ANOVA		3(13.6)	9(40.9)	10(45.5)	22	30(15.1)
	다중비교			2(25.0)	6(75.0)	8	
회귀분석	선형모형	1(3.7)	3(11.1)	9(33.3)	14(51.9)	27	34(17.1)
	로짓모형				6(100.0)	6	
	프로빗모형				1(100.0)	1	
다변량 분산분석	MANOVA			4(57.1)	3(42.9)	7	8(4.0)
	Friedman test				1(100.0)	1	
공분산분석(ANCOVA)	1(100.0)				1	1(5)	
다변량 자료분석	인자분석 (factor analysis)		2(28.6)	2(28.6)	3(42.8)	7	10(5.0)
	판별분석 (discriminant analysis)			2(66.7)	1(33.3)	3	
경로분석(path analysis)				3(100.0)	3	3(1.5)	
공변량구조분석(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1(100.0)	1	1(5)	
기 타				2(100.0)	2	2(1.0)	
계	12(6.0)	24(12.1)	68(34.2)	95(47.7)	199	199(100.0)	

* Scheffe test, Duncan test, Tukey test, SNK test, LSD test 등이 포함됨. 다중비교는 ANOVA 다음 단계의 분석으로 이 둘은 양자택일적의 관계는 아님.

9) 빈도항목에는 빈도분석만 적용한 연구만을 포함시켰으며 다른 통계기법과 함께 빈도분석이 사용되어 보조적 분석도구로 활용된 경우에는 집계에서 제외시켰다. 그 이유는 이 분석의 목적이 연구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가장 중요하게 적용된 통계기법을 밝히고자 한 것이기 때문이다.

가장 많이 활용된 분석기법은 두집단간 평균값 차이의 유의도를 검증하는 기법인 t 검증으로 17.6%로 드러났다. 여기에는 비모수통계기법으로 3번 사용된 Wilcoxon 검증이 포함되었다. 다음으로는 17.1%를 점한 회귀분석이 두 번째로 많이 적용된 분석기법이었으며 이 뒤를 이어 x^2 검증이 15.6%, ANOVA와 다중비교를 포함한 분산분석이 15.1%, 상관분석기법인 피어슨 r이 12.6%, 빈도분석이 9.5%, 인자분석과 판별분석을 포함한 다변량자료분석이 5.0%, 모수, 비모수 다변량분산분석이 4.0%, 경로분석이 1.5%, 기타가 1.0%, 마지막으로 공분산분석과 공변량구조분석이 각각 1번으로 .5%를 차지하여 가장 활용빈도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적으로 보아 단순기술통계기법부터 고급통계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기법들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5년대 이후에는 특히 공변량구조분석, 경로분석, 그리고 회귀분석 기법중 로짓모형이나 프로빗모형과 같은 고도의 통계기법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눈에 띄는 변화중의 하나이다. Wilcoxon 검증이나 Friedman 검증과 같은 비모수적 통계기법이 1990년대 이후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 또한 주목할 만한 경향이다. 이러한 현상은 Siegel(차배근, 1985: 427 재인용)이 말하는 비모수통계기법의 특성, 즉 표본이 추출된 전집분포의 형태와 관계없고, 표본수가 6이하일 때 사용하며, 서로 다른 전집으로부터 추출된 표본에서 얻어진 자료의 검증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앞의 <표 4>에서 제시한 사회사업실천관련 논문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분석기법의 사용빈도경향은 시기별로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빈도분석과 x^2 검증과 같은 기초통계는 전 시기에 걸쳐 고르게 활용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t 검증은 최근으로 올수록 사용빈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전체적으로 경험분석논문의 편수가 증가하기도 하지만 측정변수가 점차 명목적 척도에서 발전하여 등간적 척도 등으로 확대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상관관계분석기법인 피어슨 r 은 1990년에 들어와 괄목할 만한 증가율을 보여준다. 회귀분석은 시기에 따라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분산분석 또한 계속 사용빈도가 늘어나고 있다. 반면에 1990년대 이후에 활용되기 시작한 다변량분석이나 다변량 자료분석, 경로분석, 공변량구조분석과 같은 고급통계분석기법은 사용빈도면에서는 매우 미진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용기법상의 편향성은 <표 6>에서 보이는 연구의 목적과 유형의 한정성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주는 결과라고 하겠다.

VI. 맺음말

우리나라 사회복지학의 경험분석연구를 분석한 결과 1979년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경험분

석연구들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평균적으로 <한국사회복지학>에 게재되는 총 논문의 42.7%라는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일단 사회복지학 연구에 있어서 경험분석은 연구방법론으로서 자리매김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이론화 정향이나 방법론적 추세를 통해 살펴본 학문적 위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학제성과 협업성, 선정된 연구주제, 산출지식의 성격 등의 측면에서 분석해 본 결과 실천성이라는 사회복지학의 학문적 위상은 아직 정립되지 못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경험분석연구를 시도한 연구자중 사회복지가 아닌 다른 학문을 전공한 자는 단 4명으로 3.6%에 불과하였으며, 실무자와 학자간의 공동작업으로 이루어진 연구 또한 총 4편으로 전체 연구편수의 3.2%에 그치고 있어 인접학문간의 학제성이나 실무자와 학자간의 협업성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험연구가 선택하는 주제는 매우 다양한 범주를 포함하고 있으나 연구편수에 있어서는 정책, 행정, 직접적 사회사업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등과 같은 실천과 직접 관련된 주제보다는 사회복지현상에 대한 규명, 즉 사회조사(social research)라고 불리울 수 있는 연구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시도되고 있었다. 이러한 특성은 대부분의 연구가 양적방법론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통계분석기법 또한 대부분 모수통계중심이라는 사실과 논리적 일관성을 갖는다고 하겠다.

둘째, 경험분석연구들에 한정시켜 볼 때 우리나라 사회복지학 연구들은 아직 이론화의 과정으로 발전하지 못하였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생산된 지식의 이론적 체계성은 검증과 반증의 지속적 작업을 전제로 하며 이를 위해서는 동일 연구주제들의 집락형성과 동일분석틀의 재적용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분석한 연구들은 개별화된 주제와 서로 다른 분석틀에 의해 수행되어 그 결과들은 서로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분절되어 있었으며 연구주제들의 집락형성도 극히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경험연구의 방법론적 패러다임은 양적 방법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황으로서 새로운 인식론에 대한 수용이 다른 분야에 비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넷째, 우리나라 사회복지학의 경험연구단계는 형상서술적 단계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분석결과 형상서술적 연구가 전체 연구의 65.5%로 가설·모형검증이나 인과관계검증보다 두배가 넘는 정도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 경험연구의 숫적 추세에서는 발전적 궤도에 진입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분석수준면에서는 아직도 서술적, 개념적 연구단계임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분석기법활용면에서 다시금 확인된다. 분석기법은 전 시기를 걸쳐 단순기술통계들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숫적으로도 상대적으로 빈번히 사용되고 있었으며 로짓분석, 경로분석, 공변량구조분석과 같은 고급통계기법들은 1990년 이후의 연구들에서 비로서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그 사용빈도는 아직도 매우 저조한 수준이었다. 즉 빈번히 동원된 통계기법들은 형상서술적인 연구에 적합한 빈도분석, χ^2 검증, t 검증, 피어슨 r 등 기술통계기법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경험연구주제의 편향성과 산출지식의 실천성의 결여, 지식의 도출이나 발견의 단계인

이론화수준 등으로 정리되는 사회복지학 경험연구의 이론화정향은 양적 방법론에의 경도, 형상 서술적 분석수준, 단순기술통계로의 편향성 등의 방법론적 특성과 서로 상호규정하면서 실천성, 적실성있는 지식의 산출과 사회복지학의 이론정립을 더디게 한다고 할 수 있다. 경험연구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또 다른 사실은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특정 연구방법론, 특정의 분석기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특정한 방법론에의 집착은 문제의식의 생성을 가로 막음으로서 생산되는 지식의 내역과 구조를 고착시킬 뿐이다”. (김웅진, 1996: 9) 이보다는 인식론적, 방법론적으로 다양한 관점을 수용할 유연한 자세가 요구된다. 또한 연구주제를 선택하고 분석틀을 설정할 때 학자들간, 학문들간의 학술적 교류를 크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실무자들과의 공동작업은 학문의 실천성을 담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밝히자면 무엇보다도 사회복지학분야에서 이루어진 경험분석연구의 경향을 보면서도 분석대상을 <한국사회복지학>에 게재된 논문으로 한정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더더욱 연구의 선정, 선정된 연구를 연구과제별로 분류하는 과정에서의 자의적 해석이나 주관적 판단, 더 나아가 분류의 오류나 강제성의 개연성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한계점은 이 주제에 관한 추후의 연구들에서 해결되기를 기대해 본다.

* 부록 : 분석대상논문

호 (발행연도)	연구자명
창간호(1979)	최일섭(8), 남세진(9)
2 (1980)	김경희(외)(3)
3 (1981)	장소영(9)
5 (1983)	김종옥(6), 김인숙(6)
6 (1984)	문인숙(8), 정진영(5), 최성재(6), 허남순(6)
7 (1985)	최선화(7)
8 (1986)	성규탁(3), 허남순(6)
9 (1986)	김영모(8)
10 (1987)	이근창(1), 함철호(1), 유응숙(1)
11 (1988)	김영모(외)(8), 이영철(3), 이용교(7)
12 (1988)	송성자(7), 서채원(2), 김동배(6))
13 (1989)	남광성(1)
14 (1989)	박정호(1), 이가옥(외)(6), 이광자(6), 이인정(6)
15 (1990)	성규탁(외)(3), 김범수(외)(7), 김연옥(6), 이영실(6), 이용교(6)
16 (1990)	양옥경(5), 이영분(5), 윤혜미(4), 배태순(6), 송성자(6), 김수수(5), 김종천(7), 이용교(4)
17 (1991)	남기민(3)
18 (1991)	이영미(외)(4), 윤혜미(4), 조취일(6), 최혜경(6), 최현숙(6)
19 (1992)	김동배(5), 노혜련(6), 안향림(5)
20 (1992)	김연옥(7), 김의명(1), 양옥경(6)
21 (1993)	배임호(6), 신성자(6), 이영분(7), 황성동(6)
22 (1993)	김미혜(6)
23 (1994)	김영종(3), 박병현(6), 송성자(6), 윤현숙(5), 이인정(6)
24 (1994)	감정기(8), 남세진(외)(4), 류상열(7), 박인선(6), 양옥경(10)
25 (1995)	감상균(외)(8), 김성환(외)(3), 윤현숙(6)
26 (1995)	김기원(외)(6), 나동석(5), 신성자(6), 이은주(외)(7)
27 (1995)	김인숙(6), 문선화(외)(7), 신섭중(외)(8)
28 (1996)	강철희(3), 곽지영(외)(6), 김미혜(7), 김성천(외)(5), 김종일(1), 김철수(6), 송성자(외)(4), 윤혜미(4), 이인정(6)
29 (1996)	감정기(1), 권중동(6), 김기원(외)(6), 엄명용(2), 이변송(외)(3), 최재성(6), 홍경준(1), 황성동(1)
30 (1996)	고미영(5), 김혜란(5), 박경숙(3), 윤영민(외)(10), 유태균(1), 이명신(6), 이삼연(6), 이정숙(외)(10)
31 (1997)	강철희(1), 권복순(외)(5), 김동배(외)(10), 엄예선(외)(5), 윤혜미(6), 장승옥(6), 정순들(3), 함철호(외)(3)
32 (1997)	김연옥(외)(9), 박병현(1), 박현선(외)(6), 신성자(6), 엄명용(6), 한동우(10)
33 (1997)	김기환(외)(3), 김재엽(외)(5), 유상렬(5), 박수경(6), 신성자(6), 윤현숙(5), 이선우(6), 최혜경(6)

* 창간호~8호 : 사회복지학회지, 9호~10호 : 한국사회복지학 1, 2호, 11호이후 한국사회복지학

참 고 문 헌

- 김계수 외. 1993. "한국정치연구의 대상과 방법". 김웅진 지음. 방법론과 정치적 실존. pp. 123-151.
- 김광웅. 1997. 기초·원리·응용 방법론 강의. 서울: 박영사.
- 김성이·김상균. 1994. 사회과학과 사회복지. 서울: 나남출판.
- 김연옥. 1994. "사회사업가의 조사연구에 대한 태도와 활동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제5호. pp. 210-224.
- 김웅진. 1996. 방법론과 정치적 실존. 서울: 인간사랑.
- 김인철. 1994. "한국정책학 분야의 연구내용과 그 성격". 김웅진 엮음. 방법론과 한국정치학. pp. 179-184.
- 김정근·김영기. 1996. "문헌정보학 연구에서 글쓰기의 혁신은 가능한가". 김정근 엮음. 학술연구에서 글쓰기의 혁신은 가능한가? 서울: 한울아카데미, pp. 13-24.
- 임종대. 1993. "한국사회복지학의 반성". 이론. 제4호, pp. 196-218.
- 전남진. 1987. 사회정책학 강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차배근. 1985. 사회통계방법. 서울: 세영사.
- 최균. 1995. "사회복지학의 연구경향분석과 과제". 1995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p. 1-14.
- Beckerman, A. 1978. "Differentiating Between Social Research and Social Work Research: Implications for Teaching." *Jr. of Education of Social work*. 14(2). pp. 9-15.
- Casselmann, B. 1972. "On the Practitioner's Orientation toward Research." *Smith College Studies in Social Work*. 42. pp. 211-233.
- Cowger, C. & J. Kagle. 1980. "Social Work Research: What's the Use?" *Perspectives for the Future*(Kay Dea, ed.). Washington, D.C.: NASW.
- Kirk, S., M. Osmalov and J. Fischer. 1976. "Social Workers' Involvement in Research." *Social Work*. 21. pp. 121-124.
- Rosenblatt, A. "the Practitioner's Use and Evaluation of Research." *Social Work*. 13. pp. 53-59.
- Smith, D. 1987. "The Limits of Positivism in Social Work Research."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Vol. 17. pp. 401-416.
- Cook, T. and C. Reichardt. 1979.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methods in Evaluation Research*. London: SAGE Publications.
- Yin, R. 1989. *Case Study Research*. London: SAGE Publications.

Abstract

A Critical Analysis on Social Welfare Researches in Korea

Kim, Yoon Ock

This article examined the trend of 125 empirical researches which were published in Jr. of Korean Social Welfare from the first issue to no. 33. in terms of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orientations. The content analysis was employed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Since 1979, the number of empirical researches was in the trend of increasing.

The findings from this research were as follows.

- 1) Among 166 authors, 96.4% were majored in social welfare. Also 6.0% were practitioners and the rest of them were in the position of professors or researchers. The outcome of lack of interdisciplinary co-work and researcher-practitioner co-work led the article to conclude that the nature of applied social science of social welfare was not so actively pursued in Korea.
- 2) It was almost impossible to find researches which studied same theme or employed same analytical framework. This meant that the work of re-verifying and proving the contray could not be done although it was essential for theory-building. In other words, the disciplinary of social welfare was far behind in the process of theory-building.
- 3) The methodology upon which most of researches were relied was quantitative methodology(92.8%). The article concluded 'paradigm shift' was not begun in the disciplinary of social welfare yet.
- 4) The study concluded that the particularity of empirical researches of social welfare in Korea was descriptive-configurative study. Whereas 65.5% of 125 empirical studies were descriptive-configurative, 25% were hypothesis - model test and only 6% causal analysis.
- 5) The most applied statistic models through the period from 1979 to 1997 were descriptive statistics such as frequency, chi square test, Pearson's r. More advanced

statistics such as logit regression, probit regression, path analysis,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were shown since 1990.

Tel : (02)210-2167

Fax : (02)213-4254

E-mail : kyoona@uoscc.uos.ac.kr 천리안; yo0506